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News

- 강수진, 獨 무용장인 영예 ②
- 오늘 최고 80mm 비·강풍 ③
- 오늘밤 韓-우루과이 축구 ⑯

Jeollado

- 그 사람·허경만 前 지사 ⑦



Entertainment

- CF 할리우드 바람 ⑧
- 日 소설 충무로 돌풍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꽃게 ⑯



광주 中영사사무소 어제 개소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주(駐) 광주 중국영사사무소 개소식이 23일 서구 쌍촌동 '공자학원'에서 닉푸루이 주한 중국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상공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국영사사무소는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을 갖춘 후 6월말부터 비자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워리크자 jrwi@kwangju.co.kr

'자연의 반란' 동물원이 심상찮다

이상기후로 동물들 생태 교란
산양·꽃사슴 넉달 빨리 출산
면양, 꽃샘추위에 예정일 넘겨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혼란이 야생동물들의 분만 교란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록된 지난 겨울과 '가장 매서웠던 꽃샘추위'로 기록된 3월 중순 까지의 한파를 겪는 동안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들 중 상당수가 조기분만이나 자연분만 등 이상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수의사들이 긴장시키고 있다.

23일 우치동물원 수의사들에 따르면 올봄에 새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던 무풀론 산양, 면양, 염소, 꽃사슴, 종록사슴이 봄처럼 따뜻하던 지난 겨울에 모두 새끼를 낳았다. 대략 1개월 이상씩 일찍 태어난 이들 동물의 새끼들은 발육상태가 더뎌 수의사들이 긴장 속에 불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년과 달리 지난 17일까지 영하의 기온이 이어졌던 꽃샘추위로 인해 동물들이 분만시기를 보름이상 넘기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연분만은 모태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수의사들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남유럽이 원산인 무풀론 산양의 경우 원래는 9~11월 쯤 임신해서 3월 중순 분만을 해야 하지만 암컷 7마리 중 2마리가 올해 1월 새끼를



지난 1월 15일 태어난 우치동물원 무풀론 산양과 그 어미. 이 새끼산양은 3월 중순 분만될 예정이었으나 무려 두달 빨리 태어났다.

/워리크자 jrwi@kwangju.co.kr

낳았다. 면양은 9~11월 임신해 4월 분만이지만 7마리 중 2마리가 12월에 새끼를 낳았다. 또 염소 6마리 중 3마리가 9~11월 임신, 3~5월 분만이지만 역시 11~1월 분만했고, 꽃사슴과 종록사슴도 9~11월 임신 4월 분만이나 각각 1마리씩 11월에 새끼를 낳았다.

반면 3월 중순 이미 새끼를 낳았어야 하는 무풀론 산양 5마리와 면양 4마리가 부풀대로 부푼 배를 한 채 아직껏 새끼를 낳지 않고 있다.

수의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에 분만했을 시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제때 분만하지 않으면 관리하기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상필기자 camus@

또한 분만지연은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호르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최종육(38) 우치동물원 수의사는 "동물들이 이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상 분만이 아닌 동물들이 성장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걱정거리다"고 말했다.

조선대 생물학과 김종세 교수(동물 발생학)는 "야생본능이 남아있는 이들 포유류가 이상 기온 속에 생존본능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뇌하수체가 빛과 온도를 감지해 성 호르몬을 분비해 하는데 이 과정이 교란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자연의 반란이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

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불 정책' 존폐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통합신당모임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3일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4·15총선 때 3불정책 유지 당론을 확정했고 그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론은 그대로"라며 3불 정책 유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3불정책이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조"라며 "본고사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의 폐쇄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가 마련된 후에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정책 위원회부의장은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이명박·박근혜·정운찬 "손질" VS 정동영·김근태 "유지"

'3不정책' 대선 핫이슈로

정부가 대학입시 정책의 골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존폐 및 수정 문제가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力개발기구(OECD)가 '3불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울대가 비판한 데 이어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도 각기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등은 골간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기여입학제 금지는 유지하되, 고교등급제는 보완하고 본고사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3불 정책' 수정 보완론을 펴고, 천정배 의원은 혁신 기조를 유지하되 기여입학제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

"BDA문제 다음주 풀릴 것"

宋외교, 6자회담 재개 시사… "60일내 2·13조치 완성"

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측이 쌀을 협상대상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내주 월요일부터 고위급에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어려운 쟁점을 접종 협상해 균형된 FTA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데 순기능을 한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상황, 조건이 이뤄지면 정상회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시기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성명감

IOPE